

〈요한 15 : 5 ~ 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라났기 때문이다.

예수그리스도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지녀야 할 특성을 사랑이라고 한데 대해 여러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은 포용과 일치 관계일 것이다.

1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이점에 있어 냉정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다. 교회의 일치라고 하는것은 이제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는것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체하는것까지 가로막힌다면 여기에 철저한 회개가 요청되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속에서 100년이나 자란 교회가 교파주의를 넘어서 일치를 지향하는 것은 이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성과 회개라는 것은 성장을 멈춘다거나 중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도취나 업적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저편에서 들려오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엄숙한 음성을 다시 듣고 새로이 갱신하자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100주년 기업사업의 표어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구절을 정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과거 1세기 동안 행해온 일들을 아무 반성과 평가없이 그대로 선교 2세기에 연장시켜 간다면 그것은 찍혀 버릴 가지에 불과 할 것이다.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만 새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100년을 보내고 이제 역사의 진공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를 비움으로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여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후회나 위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것을 받을 수 있는 전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용기를 얻는 계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은 사업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과 역사속에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형성해 나갈수 있느냐 하는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부단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갱신해 가는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 '84 한국기독교

## 100주년 선교대회

### 주 제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 부 제

정신혁명 교회갱신 민족복음화

1984년 8월15일(수), 16일(목), 17일(금), 18일(토)은 밤집회를 19일(일)은 낮집회를 갖습니다.

(여의도광장)

지방 9개도시 선교대회는 8월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에서 갖습니다.

### 각급대회

(16일 낮부터 18일까지)

교역자대회 : 영락교회

평신도대회 : 정동교회

여성대회 : 이화여대강당

청년대회 : 장충체육관

학생대회 : 광림교회

어린이대회 : 대광고교강당

## 교회여성활동의 평가와 전망

이 효 재

(전 이화여대교수)

한국교회가 서양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 형성되고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는 100년동안 여성들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르다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성장과 운영을 위해, 또 민족과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결코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리려 하지 않고 늘 묵묵히 희생적 역할을 해온 것이다.

초기 교회 여성들인 김할란, 김마리아, 박에스터, 김필레씨등 소수 선각적 개화여성들과 전도부인들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들의 높은 뜻과 업적을 되새겨야 할것이다. 선교 2세기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감사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여태까지의 마르다역한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역할까지도 해야한다. 마리아의 역할이란 예수의 가르침에 참여하여 열심히 배우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성경을 배우되 남성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였으나 앞으로의 마리아의 역할에는 단순한 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학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의 교권에 참여하여 교회의 운영, 교단활동등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대단한 종교단체로 성장하여 민족의 역사와 발전, 국가와 사회 발전에 교회의 힘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부과 책임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여성들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 민족의 역사, 민족의 시대적인 요구가 무엇인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그밖에 경제구조와 정치에 대한 이해등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개인이 모든 것을 다 알수는 없다. 지금 시대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많이 있으며 교회속의 여러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으며 초기와 같이 개화여성에게 매달리는 시대는 아니며 한 개인이 출세 성공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도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내외에서 협력하고, 전문분야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런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는 국제시대이므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요구되는 현재의 시대사조 속에서 우리도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내적 협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협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의 지난 100년동안의 교회여성활동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고 하겠다.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때 여성들은 기독교신앙을 통해 사랑과 해방을 체험하게 되었다. 당시는 민비시해나 청·일전쟁등으로 민족적 수모를 절감하는 시대였으며 이때 여성들은 개화의 의지를 갖게 되었으며 무지의 자각을 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독립을 원하게 되었다. 여성들의 생활자체도 노예생활과 같은 시집살이여서 남자들의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가족생활에 얽매어 있었으며 부패한 권력속에서 민중들이 탄압받으며 억울하게 살던 시대속에서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동시에 거둬난 삶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능력에 대한 갈구가 강해졌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1905년과 6년의 교회 초기 부흥도 다 이러한 덕분이었다고 하겠다.

성령의 은사로 거둬나는 신앙, 사랑의 체험을 통한 신앙, 단순하고 순진한 신앙이 그당시의 교회여성들의 신앙이었고 이것은 일종의 기복신앙을 형성하였다.

기복신앙이란 사회나 민족의 문제보다 자신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시 상황이 여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현모양처였고 따라서 신앙 또한 현모양처적인 기복신앙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하나 교회여성 활동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일제시대를 통해 애국애족의 신앙이 나타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교회란 사회학적으로 볼때 여러 인간이 모여 공동유대감을 갖고, 같은 신앙과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사회조직을 이루고 사는 공동체라 하겠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의 공동체는 혈연적인 가족과 친족중심이였으나 그후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예수는 “누가 나의 가족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가족의 Vision을 볼 수 있다. 즉 가족은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 거기서는 남녀의 차별이나 유산자와 무산자의 구별이나 불평등이 없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 실천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므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함께 나누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게 되었고 신앙을 통해 새로운 인간공동체인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초기의 형태의 신앙공동체로 남아있을뿐 실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Vision과 신앙을 초기 한국땅에 심어 놓았을때 한국교회 여성들이 받게된 많은 수난에도 불구하고 정성과 열의를 다해 믿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시집살이와는 다른 예수의 사랑, 죄를 사함받는 체험, 남녀가 한자리에서 예배들이는 새로운 체험을 통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 신앙적인 체험, 거듭나는 체험, 기쁨 뿐만 아니라 조직생활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일 수 있었다. 사경회나 교회여성부인회, 부인전도회등이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강습을 받기도 하고 또한 각종회의를 진행시킬때 민주주의적 진행법을 익히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해방이후로는 국가가 헌법상의 민주주의, 교과서상의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제 학회활동에서는 전혀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조직활동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 여성지도자 양성은 교회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10년대에 평양여성성경학교가 장로교에서 생겼으며, 감리교에서는 협성여자신학교가 1920년에 생겼고 일찍부터 여목사제도를 실시하여 교회여성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의 선교사업이 실시되어 여성들이 앞장선 성미나 헌금을 통해 선교비를 충당했으며, 개척교회나 교회건축에도 실제 노동력으로 여성들이 헌신하여 교회성장에 여성들의 기여도는 실로 크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일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애국애족의 신앙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마리아나 신의경 선생이 자금을 위해 지하운동을 하였으며 그외 일제말기 장로교부인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주기철목사와 함께 옥고를 치루었다. 그외에 YWCA나 절제회등 기독교여성단체와 함께 사회에서 여성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사회사업, 구제사업등을 벌였다.

당시 교회는 대부분 지역사회의 센터역할을 하였다.

즉 예배장소로 뿐만아니라 문맹타파를 위한 교육, 성경공부와 함께 가정생활, 교양교육에 관한 것을 선교사들이 소개하였으며 애국애족의 신앙 또한 불어 넣어 주었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마르다의 역할만을 해온 교회에 분열이라는 교회내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교권다툼에 대해 여성들은 알지도 못한채 따르기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70년대 사회가 급변하고 4·19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주화나 평화 통일에 대한 간구가 강해지게 되었고,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편 실업화, 근대화를 위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하여 한국사회는 많은 진통을 겪게 되었다. 사회변화란 사회다양화를 뜻하며 농촌중심의 생활에서 급격히 도시화를 이루게되어 도시인이 전체

인구의  $\frac{2}{3}$ 가 된 도시비대화를 말한다. 이로인해 가정생활은 핵가족화 하였고 아파트가 증대되었고 선교의 대상도 농촌·어촌·광촌·빈민가·근로자·교도소·유타녀등 다양화 해진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는 민주화나 인권·여성·노동자·농민운동, 빈민지역문제, 환경오염, 평화문제등 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야 할것이며 교회는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며 교회여성들은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여성연합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운동이 교회나 교단속에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저변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선교대상까지 다양화해짐으로 해서 집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성격에 따라 설교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문제점까지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기 위해서는 신학에 대한 이해를, 대상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전문적으로 선교방법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시대의식, 역사의식에서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해야 하는가를 연구해야 할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교회에 대한 신앙공동체로서의 상태가 실천적 공동체로 발전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복신앙적이며 개인구원의 형태에서 사회를 복음화 하는 (이것은 복음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함) 단계로 들어서야 할것이다. 실천이란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회여성들이 교단적, 지역적,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시대적 요구는 사회의 민주화이므로 애국애족의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평등사회 즉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회는 먼저 교회내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것이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받고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여성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거듭나기 원하고 새로운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내의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회내 청년, 여성, 가난한 사람등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진정한 빛이 될수 있도록 민주적 공동체를 실천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한 민주센터 역할이 가능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때 여성에게는 사랑의 기질이 다분히 많다. 남성에게는 정치적이며 호전적기질이 많아 이들을 통한 평화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 한반도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지점이 되고 있으나 우리민족은 평화적인 민족, 민주주의가 가능한 민족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고 특히 여성이 그들의 기질을 발휘하여 앞장서야 할것이다.

1984. 5. 14  
100주년 3월 10일

## 여성 100주년 사업을 전망한다

박 영 숙

(본협의회 해외분과위원)

한국교회 100주년은 두번째의 회년맞이이다. 회년의 선포는 역사적 과정을 정지시켜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누적된 모순에서의 해방을 가져와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한국교회의 100주년기념사업의 목표는 화해와 일치를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며 민족의 복음화와 받은 축복을 특히 불우한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과 교회역사를 기념하며 앞으로의 교회의 나아갈길을 모색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에 준하여 여성분과위원회가 설정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축제와 새 세기를 향한 행진을 겸한 「여성대회」 개최와 앞으로의 교회여성운동의 단합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10개지역에서의 「지역대회」개최이다. 이들 대회에서 교회여성들은 일치된 모습으로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여 교회여성운동의 신학과 역사관을 정립하며 해외교회 여성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국토 및 민족통일, 그리고 교회일치를 위한 금식기도회를 가지며 「여성의 날」 선포로서 새로운 교회여성운동의 이정표를 마련하게 한다.

② 「한국기독교여성100년사」 「한국기독교여성단체연표」 그리고 「100주년사업 여성분과 행사자료집」을 펴낸다. 유교전통하에서의 여성의 인간화와 일제치하에서의 애국애족운동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교회여성운동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룩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 발자취를 더듬으며 식민지신학과 분단시대의 오류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의 교회여성의 모습을 반성하고 역사와 민족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한, 좌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③ 사랑의 실천운동으로서 「평화마을」을 설치하는 일이다. 아직 이 사업은 그 계획과 규모가 연구중이라고 하나 이것은 어두운 그늘에 가리워져 있는 이웃 형제에게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는 운동으로서 한국의 교회여성들이 하나가되어 전원이 일천원의 헌금으로 이 일을 해낸다고 하는것은 여러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④ 100주년기념사업의 완수 그리고 한국교회여성의 일치를 위한 연합운동의 계속추진을 위해 「한국기독교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향후 한국기독교여성운동의 새로운 국면으로서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사업설정은 수차에 걸친 준비기도와 회의를 거쳐 마련이 되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구성도 끝난 것으로 안다. 남은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계획을 어떻게 조직체를 활성화해서 목표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여성단체들은 몇 가지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야만 한다.

① 개교단의 기념사업과 연합사업추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병행추진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연합사업 우선의 결단이 요청되는 것은 100주년 기념사업이야말로 한국기독교여성이 하나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일에 투신하고 있는 직권대표나 유명인사가 일을 해낼수 있다고 보기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업을 위한 헌신적인 일꾼이 있어야 하며 요원훈련을 통해 사명의식의 고취가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본다.

③ 사업내용이 캠페인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므로 이 사업을 성과있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망의 정비가 긴요하다. 지교회의 각 여신도들에게 까지 운동정신이 전달되어야함은 물론이다. ④ 재정조달은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각자부담으로 하는 것이다. 남의 도움에만 의존하던 낡은 시대의 잔재를 떨쳐버림도 이 차제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의식치 않는다.

⑤ 여성100주년사업의 운동주축은 여성문제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교회 갱신을 비롯한 민족문제와 인류문제의 전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분과에서만이 아닌 각분야에서 교회여성들은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⑥ 오늘날 죽음의 진상에 놓여 있는 역사의 추세를 꺾는 일에 앞장선 한국교회여성운동은 국내적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유대를 통해서 인간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때만이 한국교회의 두번째의 회년맞이의 그 뜻을 살릴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